

# 부설주차장 건물 준공 후 “나 몰라라”

### 불법 용도변경·출입구 폐쇄 등 위반행위 끊이지 않아 제주시 동지역 전수조사서 1만7891곳 중 1658건 적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제주시가 형사고발 등을 포함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동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1만7891개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위반건수는 1658건으로 나타나 9.3%의 비율을 보였다. 열 곳 가운데 한개꼴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는 불법 용도변경 441건, 출입구 폐쇄 195건, 물건 적치 1022건 등이다. 시는 또 794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53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부설주차장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 등재돼 주차장의 위치 및 대수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건물 준공 후에는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다른 시설로 사용하는 등 무단용도 변경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위반한 경우가 수두룩했다.

시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시는 원상회복에 응하지 않은 6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 가운데 건물법인과 관리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부설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이와 관련 부설주차장의 제 기능 유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 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나눠 격년제로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설주차장은 제주시 전체 주차장(30만3545면)의 85%를 차지하면서 생생속 주차장 해소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 차량관리과 강봉수 팀장은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민 인식 부족으로 위반사례가 많은 것 같다”며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와 이용 활성화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 2021 제주애 빠지다 ㉠ 손동훈 메종드씨엘 하버39호텔 대표



“문제가 생기면 갖가지 노력을 통해 해결한다”는 긍정의 힘을 바탕으로 제주에서 꾸준히 사업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손동훈 대표.

## “숙박업계 파트너로 새로운 도전 중”

3년 전 제주에 등지를 틀 때도 낯설 보던 익숙함과 편안함이 더 컸다. 그 배경엔 20대 때 제주에서의 군생활 경험이 큰 몫을 차지한다. 20여년이 흘러 40대 중반에 접어들며 서울에서 잘 운영하던 가구회사를 제주(현재 서귀포시 색달동)로 옮겼다. 시장성을 봤지만 온 가족이 이주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텐데, 그는 “낯선 곳에 간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3년 사이 부모님과 친척 등 지인들을 제주로 불러들일 만큼 손동훈(47)씨의 ‘제주 사랑’은 예측에 가깝다.

### 20대 때 군생활로 제주와 인연

### 가구공장 이전하며 제주에 등지

### 호텔·펜션·레스토랑 사업 운영

### ‘자연친화적’ 숙박 공간 추구

손씨를 표현하는 명함은 다채롭다. 가구회사 메종드프로방스부터 메종드씨엘 하버39호텔엔리조트·메종드씨엘 풀빌라·메종드씨엘 서귀포 휴양펜션 등 가구공장과 호텔, 펜션,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구업을 통해 맺은 인연이 숙박업 전향으로 연결된 것이다.

손 대표는 여러 호텔·펜션 등 숙박 시설에 가구, 이불, 침대, 수건 등을 납품하며 인테리어 및 컨설팅을 통한 ‘해결사’ 역할도 하고 있다. 타지

역 화장지 공장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그는 호텔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KT텔레캅 파트너로서 활동영역을 넓히며 제주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손 대표의 사업 철학은 명확하다. 후발주자인만큼 남들이 안하는 일, 버리는 어려운 일을 반드시 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낡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펜션을 ‘말실 펜션’으로 만드는 것. 그는 “그걸 성공적으로 해내니 여러가지 일이 들어오더라”고 했다. “문제가 생기면 갖가지 노력을 통해 해결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도 제주에 온 후 꾸준히 사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다.

손 대표는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에도 공을 들인다. 그는 “혜택을 보는 만큼 자연을 더 생각하게 됐다. 우리가 사는 공간과 자연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다”면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은 자연을 지키며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청정한 제주 자연을 지키기 위한 친환경 제품 사용, 쓰레기 재활용에도 관심이 많다.

사업에 매진하다보니 누군가는 ‘힐링’하러 온다는 제주의 자연을 즐길 여유를 누리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운 손 대표는 오늘도 서귀포와 제주시를 오가며 차 속에서 1100도로의 운치를 즐기는 것으로 그의 바쁜 일상에 심포를 찍는다.



바다거북 “고향 앞으로” 26일 오전 서귀포시 중문색달해변에서 해양수산부 주최로 열린 ‘바다거북 방류행사’에서 한화 아쿠아플라넷 관계자들이 바다거북들을 바다로 돌려보내고 있다.

## 서귀포 교통·주정차 개선 요구 수두룩

### 부시장 주재 회의서 의견 북돋 주정차 단속·주차장 신설 등

서귀포시 읍면동에서의 교통 및 주정차 문화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26일 한용 부시장 주재로 교통행정과, 건설과, 읍면동 교통관련 팀장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비롯해 노상·공영주차장 조성, 행락지 주·정차 단속, 도

로 노면 차선 변경, 차고지 증명제 운영 시 개선점 등 읍면동에서의 건의사항이 북돋을 이었다.

성산읍은 고성리 소재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도로구조 개선과 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정읍과 서홍동, 예래동은 이면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통한 주차환경개선을 주문했다. 송산동과 정방동, 효돈동, 동홍동, 대륜동, 중문동, 대천동 등은

노상·공영주차장 신설 및 주차타워 건립 등을 요청했다. 주차장 시설 보완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이와 함께 송산동은 보복입구 교차로에 대한 차선 변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직진 및 좌회전 차선이 맞은편에서 오는 차선과 같은 선상에 있어 위험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시는 유관부서들과 읍면동 지역별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는 ‘시민과 함께 교통 및 주정차 문화개선’을 위해 민관협력 ‘우리동네 주차장 보안관’ 운영, 민간보유 부설주차장 개방화 사업 추진 등 11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 동문시장 산지천 복개구간 하부 지장물 철거 공사 완료

제주시 동문시장을 관통하는 산지천 복개구간 하부구조의 콘크리트 지장물 제거가 완료되면서 하천 범람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다소나마 덜게 됐다.

제주시는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7월 착공한 남수각 산지천 복개구간(동문시장) 내 하부구조물 철거 공사를 최근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지천 복개구간은 국지성 집중호우나 태풍 내습 시 하천 범람 위기와 이에 따른 대규모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복개구간에는 건물 16동, 점포 약 65개 등이 위치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해 산지천 복개구간 내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정화조와 집수구 등 콘크리트 하부구조물 7개소를 철거했다.

## 공사 완료로 통수단면을 확보하게 되면서 산지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부유물에 의한 결빙 현상 최소화

유수의 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와함께 산지천 내 4개소의 저류지(시설용량 9만1474㎥)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개구조물에 대한 점검·관리를 철저히 해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에 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농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 • 레몬
- 탈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저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장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부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유라조생 1, 2년생	•하갈 4, 8년생
•천혜향 1, 4년생	•궁천 3, 5년생
•레드향(목욕) 1, 4년생	•궁천 변이(오래배나) 2,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레몬 3년생
•고림조생 5년생	•황금향 1, 2년생
•한라봉 1, 2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농자업등록번호 제18-2003-20-08

010-2699-2355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원터프린스 - 연내수확이 가능한 연강유 과실형의 새로운 강자!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가온시 10월~11월 수확가능  
-황금향(레드향)종(품질이 쉽게 벗겨진다.)  
- (FTA)기금 우량 품종 생산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대조품종 - 레아몬(레몬), 탐나는봉(한라봉), 사라향(천혜향)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산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갈, 팔삭, 세마봉, 금굴, 당유자, 야마나스, 미니몬,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농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농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주)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017 포크레인 임대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 아파트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누수탐지·가스식 정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정소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 064.742.6234  
문의 | 010.7599.6234